



# ‘민생분야 · 지역경제 활력 조례제정 힘써’

제10대 전북도의회는 을 한해 전북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의회와 집행부, 정파를 떠나 협력하며 전북의 가치를 높이는 협치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앞장섰다. 또한 주요현안 발생시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질문하며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했고, 민생분야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조례 제정에 힘썼다. 전북도의회는 2016년 한해 의정활동을 조망해본다.

## 장애인휠체어 수리 · 재능기부 등 복지향상 초점 맞춰 군산지역 사드배치 반대 등 지역현안 · 의정활동 매진

▲ **도정 및 교육행정... 기준 제시 및 잘못된 행정 적극 시정**  
도의회는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예산안 심의 등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의 기준을 제시했다. 또 잘못된 행정은 적극 시정하는 감사와 견제 역할에 충실했다. 뿐만 아니라 도민과의 소통으로 활발한 의원입법 활동을 전개했다. 체불임금 없는 관공공사 운영 조례를 비롯해 보행환경 개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 조례를 만들었다. 장애인휠체어 수리지원, 재능기부, 소상공인지원, 생활임금,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지원,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조례 등 도민 복지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제10대 개원 이후 현재까지 330건의 조례를 제·개정했으며, 이는 제9대 같은 기간 47건에 비해 7배 증가한 결과다. 또한 11월 8일부터 37일간 열린 정례회 기간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모두 772건의 개선요구를 찾아내 시정과 처리를 요구했다. 개선요구사항은 제9대 의회 같은 기간 508건에 비해 52%(264건) 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13일까지 2017년 도 예산안 5조1,485억원 및 도교육청 2조 8,474억원 등 모두 7조9,959억원과 2016년도 추경예산 8조8,505억원(도 5조9,477억원, 도교육청 2조 9,028억원)을 심의 의결했다.

▲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 연구모임 및 의정발전전문위원회 활용**  
도의회는 의원 및 사무처 직원 연찬회로 전문성 확보와 의정활동 보좌 능력을 향상시켰다.

또한 상임위원회 구분 없이 관심 분야별 연구모임을 구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토론회와 선진지 벤치마킹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며 도민 욕구를 충족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특히 도민들의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입법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위원회별 정책토론회도 전개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별 각계각층의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수시로 자문위원회의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키로 했다.

▲ **도민 애로사항 해소... 현장방문 등을 통한 민원·청원 적극처리**  
도의회는 정복의 묶음 찾고 지역 현안해결을 위해 100건의 건의·결의문을 채택, 국회와 정부 등에 전달했다. 국책사업 지방비 매칭 중단 촉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 개선 촉구 건의 등 지역현안과 균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했다. 더불어 삼성의 새만금 투자 파기를 규탄하며 삼성그룹 분사와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에서 의원이 직접 1인 시위를 전개하며 대기업의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순창군 C형 간염 집단발병 해프닝 역시 지역 농·특산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파켓시위로 지역주민을 대변했다.

▲ **발로 뛰는 현장중심 의정활동**  
도의회는 현장에서 주민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찾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행정자치위원회는 119 안전체험관과 국제교류센터 등을 찾아 시설물 안전점검 및 비교분석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노인요양병원과 장애인복지시설을 방문해 운영현황과 진료체계를 점검했다. 농산경계위원회는 탄소산업의 메카인 탄소융합기술원과 농식품 6차 산업 현장인 로컬푸드를 찾아 탄소산업 추진현황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여부를 직접 살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현장에서 전북선수단을 격려하고 재난상황실과 경보통제소를 방문, 재난 또는 재해 발생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교육위원회는 중급숙인 남이 검출돼 논란이 된 학교 현장을 찾아 즉각적인 환경개선과 학생안전상황 등을 진단했다.

▲ **글로벌 의회, 국제교류 활성화**  
도의회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발맞춰 해외선진도시 의회와 교류를 확대했다. 일본 및 중국 등과 상호교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벤치마킹 등을 활성화 했다. 정보교류 및 우호증진 등 글로벌의회로 성장·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실제 중국 강소성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방문단 일행과 간담회를 갖고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조성 등 양국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또한 일본 이시카와현 및 가고시마현의회 방문단 일행과 양 지역간 협력관계를 거듭 확인하고 전북과 새만금 투자여건 홍보에 나서는 등 국제교류의 폭을 더욱 확대했다. 황현 의장은 “을 한해 38명의 도의원은 전북이 도약할 수 있는 주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집행부와 협력하고 전북의 가치를 높이는 협치의회를 추구했다”며 “2017년 새해에도 지방자치의 한 축인 도의회가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재용 기자

▶ **인터뷰 · 황현 의장**

###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의견 대변”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도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며 전북의 가치를 높이는 협치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한해였습니다.”

황현 의장은 “지난 1년 도의회는 주요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질문하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민의 대변자 역할에 충실했다”며 “특히 민생분야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조례 제·개정을 통해 도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힘썼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북발전을 위해선 집행부와 의회, 정당의 구분이 없고 도민이 원하는 일에는 도와 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도정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감시와 견제, 그리고 예산심의에 그치지 않고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협력한 한해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도정과 교육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때로는 직접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다”며 “내년에도 전북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의회가 앞장서서 집행부와 함께 협력해 지역 현안 해결의 실타래를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해에도 활발한 입법 활동과 의욕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집행부의 삶의 질 정책과 일자리 창출 대책 등을 꼼꼼히 살피겠다”며 “이를 위해 지역에서 민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하며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겠다”고 밝혔다.

특히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전북연구개발특구 등 도정 주요 현안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현장을 직접 찾아 확인하는 현장의정활동과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감시견제와 조려자 역할에 온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황 의장은 “지방자치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지방의회가 바로 서지 않고서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꿈꿀 수 없다”며 “신뢰와 혁신을 통해 정립하고 깨끗한 의회, 나아가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